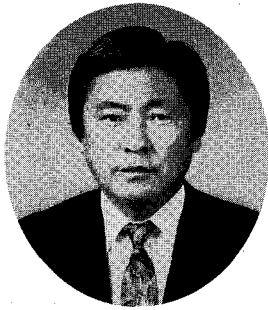


## 농민들의 의사를 다시한번 수렴하여 경쟁예상가격의 재검토가 필요



김 옥 현  
나주 성우회장

목표가격에서  
경쟁예상가격이라고 이름은  
변경해 놓았지만  
이 가격으로 시장가격의 지표로  
삼을 것이며, 이 가격수준에서  
적정소득을 올릴 수 없는  
대다수의 농가는 한우 사육을 포  
기할 수 밖에 없다.  
따라서 정부는 현장농민의  
의사를 다시한번 더 수렴하여 경  
쟁예상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 
하기 바란다.

행정, 학계, 관련단체, 농가들  
이 모여 한우산업을 살리기위해  
고심하면서 노력하여 만든 한우산  
업발전종합대책이 지난 7월14일  
발표되었다.

이번의 발표된 종합대책에 대해  
소사육 농가입장에서 몇마디 기술  
하고자 한다.

첫째는 우리농가의 가장 큰 관  
심사항은 소값이 200만원대로 하  
락시 적정소득이 보장되어 과연  
한우사육이 계속 가능 할 것인가  
에 있다.

하지만 우리 농가들이 우려하  
는 소값의 보장과 이에따른 최소  
한의 적정소득 보장대책이 미흡  
한것 같다.

목표가격에서 경쟁예상가격 이  
라고 이름은 변경해 놓았지만 이  
가격으로 시장가격의 지표로 삼을  
것이며, 이 가격수준에서 적정소  
득을 올릴 수 없는 대다수의 농가  
는 한우 사육을 포기할 수 밖에 없  
다.

따라서 정부는 현장농민의 의사  
를 다시한번 더 수렴하여 경쟁예  
상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 바  
란다.

둘째는 한우농가들이 직접 생산  
에서 부터 유통판매를 담당하여  
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

에 판매 차익을 농가가 수취할 수  
있도록 실질적으로 한우조합을 설  
립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하  
는데, 이에대해 구체적인 언급없  
이 검토하겠다는 식으로만 되어있  
어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다.

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한우협  
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구체  
적인 요건완화시책을 단행해야  
한다.

셋째는 한우산업의 숙원과제였  
으나 재원 조성의 어려움으로 계  
속 유보되어온 송아지 가격안정제  
가 다행히 포함되어있다.

다만 우리 농가가 걱정하는 것  
은 축발기금등 정부의 재원조성  
방안이 차질이 없어야 하겠고, 또  
안정기준 가격설정예 있어 경영비  
에 자가노력비를 60~90%수준을  
더하여 결정한다고 하지만 농가의  
송아지 생산 의욕이 상실되지 않  
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두당  
소득을 30만원 정도 보장한다지만  
국민소득1만불 시대에 맞는 소득  
보장이 되도록 하여 농가의 사육  
의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.

특히 농가의 최저 소득마저 보  
장되지 않을 경우 송아지 가격안  
정제의 실효성 자체에 문제가 대  
두 될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주기  
바란다.㉞